"문화·콘텐츠 산업 융성" 찬 / 반 "시장 독점에 소비자 피해"

알뜰폰·인터넷 가입 비중 낮아
합병후에도 KT가 부동의 1위
서비스 경쟁, 방송 발전 이끌 것

통신·케이블 사업자 1위의 결합
독과점 형성돼 요금 인상 필연적
소비자 손실 5년간 17조원 추정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경쟁업계는 물론 학계까지 찬반 논쟁을 벌이면서 국내 방송·통신시장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인수합병 자체가 위법한데다 시장독점에 의한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반대 측 입장과 달리, 찬성 측은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 문화융성, 시장경쟁구도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등 반대와 찬성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KT와 LGU+ 등 경쟁사와 시민단체, 방송협회 등은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통합방송법안 취지에 역행한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정부가 다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개정안인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IPTV와 같은 전국 유료방송 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소유지분은 33%로 제한된다. 반대 측은 이를 근거로 "이번 인수합병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에 적용돼 규제해야할 대상"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SKT가 서둘러 인수합병을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시장지배력 확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추환 영남대 교수는 "시장의 과반수 점유율을 확보한 SKT로 인해 소비자 후생 손실은 지난 12년간 약 11조원이 발생했다"며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5년간 최대 17조500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후생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 후생은 특정상품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향 가격'과 실제 지불하는 '시장가격' 차이를 말한다. 박 교수는 이동통신사업자 1위와 지역 케이블 방송사업자 1위간 결합으로, 시장경쟁은 줄고 집중도는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독과점 특성상 계속되는 요금인상에도 수요가 줄지 않는 '낮은 가격탄력성' 때문에 소비자 후생손실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진영에서는 한국경영정보학회에서 14년 발표한 '시장지배력 수준과 요금인하 간의 관계 분석' 연구결과도 내놨다.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인 국가의 소매요금 인하율은 1.95%로, 점유율 50% 미만인 국가 요금인하율(2.93%) 대비 낮게 나타났다며 이번 인수합병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두 회사간 결합 후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구축할 국내의 경우 요금 인하율은 1.95%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반면, 김성원 아주대 교수는 "시장점유율을 보면(미래부 통계기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1.5%에 불과하다"며 "1.5%는 경쟁관점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초고속인터넷도 CJ헬로비전 가입자가 89만명으로, SKT의 인수합병 후에도 1위 사업자는 역시 KT여서 큰 문제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우리나라 통신상품은 끼워팔기가 아니라 혼합결합이며, 혼합결합은 반드시 가격할인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합병심사때 요금인상을 우려하지 요금인하를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도 "독점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점유율이 불과 몇% 증가하는 정도로 독점화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미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통해 SKT와 KT, LGU+ 등 통신사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합병 찬성 측 주장이다. SKT가 CJ헬로비전을 합병해도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대형 사업자가 출현하면 요금뿐 아니라 서비스 질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져 방송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앞서 SKT는 CJ헬로비전 합병추진의 배경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입해 디지털전환, UHD 확대 등 케이블망을 고도화하고, 쌍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7조5000억원 상당 생산유발, 4만8000여명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SKT의 설명이다.

경제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CJ헬로비전 케이블방송 가입자 전환 의향을 분석한 결과 5%가량 요금이 올라도 타(他) 방송 상품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67%에 달했다"며 "독점시장에서 상품가격 인상이 보편적인 시장원리다. SKT 독과점이 형성되면 이용 요금은 당연히 인상돼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불법 보조금 준 판매점에 단말기 공급 중단

방통위, 유통점 신분증 스캐너 도입
온라인 가입·불법 페이백 차단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공급 중단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16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물증을 통해 확인된 단말기 판매점에는 이동통신사들을 통해 1주일간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말기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와 계약서를 쓰고 단말기를 공급받는데 이 계약서에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제재(페널티)를 가한다는 조항이 있다.

방통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통사들에 협조를 요청해 불법 판매점에 '1주일간 단말기 공급 중단'이란 조처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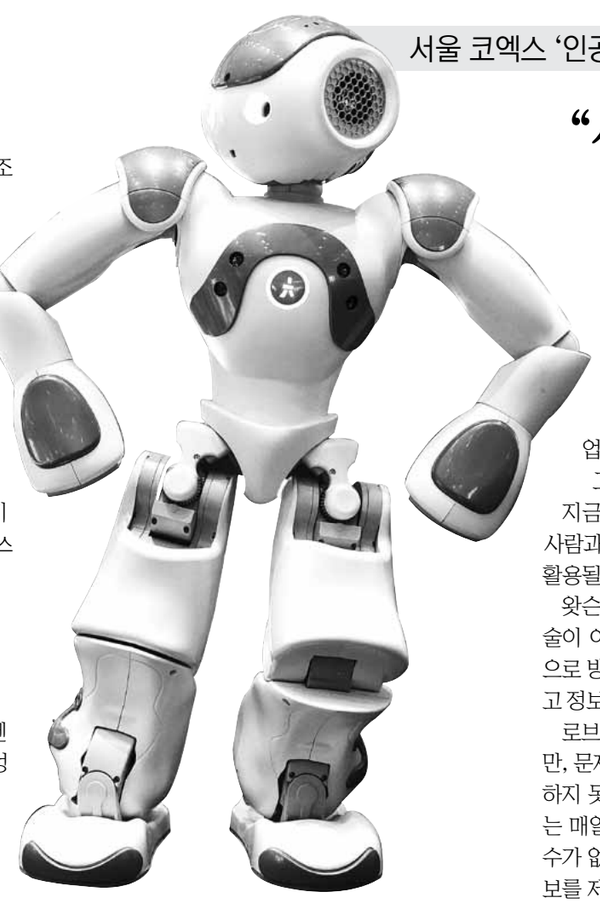
방통위는 불법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온라인 약식 판매' 근절을 위해 7월까지 전국의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도 도입한다. 이 스캐너에 입력한 정보는 신원 조회 과정에서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면 온라인 가입 등 편법적 가입이 차단되고 불법적인 페이백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1인 미디어 제작 기초 교육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가 '1인 미디어 제작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1인 미디어 제작교육'은 시청자들의 영상 콘텐츠 소비에 맞춰 연출과 촬영, 편집 등을 혼자 제작하는 시민들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이다.

1인 미디어의 개념과, 미디어 콘텐츠 기획, 촬영과 편집 등 제작단계를 거쳐 최종 완성된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에 공유하는 단계까지 구성돼 있다. 교육은 오는 19~20일 양일간에 걸쳐 운영하며 선착순 모집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문의 062-650-0332.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서울 코엑스 '인공지능 국제 심포지엄'

"사람과 언어 소통하며 사회 전 영역 활용"

로브 하이 IBM 최고기술책임자 "알파고, 구글의 놀라운 성과"

로브 하이 IBM 최고기술책임자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국제 심포지엄'에서 자사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Watson)의 미래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5~10년 안에 정보기술 산업에 큰 변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왓슨으로 대표되는 인지 컴퓨팅은 지금까지의 컴퓨터 능력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어로 소통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왓슨은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의 컴퓨팅 기술이 아니라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는 능력으로 방대한 양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로브 하이는 "과학 발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문제는 정보가 범람하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술의 도움 없이는 매일 엑소 바이트로 생성되는 정보를 검토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쏟아지는 의료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려면 의사들이 매주 160시간씩 논문을 읽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위기"라며 "인지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정보의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IBM은 현재 ▲언어 ▲데이터 인사이트 ▲스피치 ▲비전 영역에서 총 32개의 왓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왓슨은 530여개의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고, 15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상용화되어 있다.

로브 하이는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구글이 놀라운 성취를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인공지능이 어떻게 상황을 인지하고 선택하는지 알게 됐고, 인공지능이 경제발전과, 금융권, 헬스케어에 적용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로브 하이는 IBM과 구글의 차이에 대해 "IBM은 딥러닝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술을 어떻게 결합할지를 고민하는데 구글은 학문 쪽에 관심을 두는 것 같다"며 "구글도 향후 이 부분에 더 관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